

화학, “신규사업으로 승부할 때”

SK케미칼, PETG 신선 … LG·삼성은 2차전지·PDP-TV 재미

국내 대기업들이 5-10년 후 먹고살기 위해 시작한 신사업이 빠른 속도로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잘 나가는 기업이나 힘겨운 기업이나 미래 수익사업을 찾아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해외 선진기업들에 비해 2년 이상 앞선 사업들이 많아 주목된다.

SK케미칼은 섬유기업에서 정밀화학 주력의 첨단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개발한 스카이그린 PETG 수지가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각종 플라스틱 소재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2001년 하반기 울산공장에 3만5000톤 생산설비를 완공해 2002년 들어 한달 생산량이 2000톤에 이를 정도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동 후 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놀라운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 1만2500톤 장기공급 계약을 맺는 등 품질 면에서도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2002년 스카이그린 PETG 수지에서만 총 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SK케미칼은 시장잠재력과 생산능력만으로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세계 장의 25%를 차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2공장을 건설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차전지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삼성SDI는 2000년 10월부터 2차전지 사업에 집중 투자해 양산 개시 1년6개월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2002년 5월부터 월 판매량이 500만개를 넘어 수익이 나고 있다.

1999년 하반기부터 2차전지를 양산한 LG화학도 2002년 8월 판매량이 320만개를 돌파해 3년만에 수지가 맞고 있다.

2차전지의 손익분기점 도달속도는 세계 전지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보다 2-3년이나 앞서는 것이다.

삼성SDI는 정보기술(IT) 불황기였던 2000년과 2001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 결과로 최근 휴대폰과 노트북PC 등 모바일 단말기 수요가 급증해 리튬폴리머전지 등 2차전지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전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VCR과 DVD를 결합한 콤보 DVD를 2000년 7월 세계 최초로 선보여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2001년 110만대 가량을 팔아 이익률 14%의 고수익을 거두어 VCR에서 일본에 뒤진 빛을 갚았다.

LG전자는 디지털TV의 꽃으로 불리는 PDP TV(벽걸이형)에서 일본의 아성을 깨고 있다. 1998년 세계 최초로 60인치 PDP TV를 개발한 데 이어 2001년 3월 30만대의 PDP 생산공장을 가동해 10여년 앞서 PDP를 개발한 일본을 놀라게 했다.

일본 NEC는 2000년 61인치 PDP TV를 개발해 LG전자의 PDP 개발이 1년 반 이상 빠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10/ 02 >